

# 『이운지(怡雲志)』 「절신상락(節辰賞樂)」에 관한 소고(小考)

심 명 주\*

## 목 차

- I. 머리말
- II. 「절신상락」의 구성체제와 내용
- III. 향촌 놀이의 재구성 과 촌민 화합의 노력
- IV. 소결

**국문초록** | 「절신상락(節辰賞樂)」은 『임원경제지 이운지』 제8권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세시에 따른 풍속과 놀이에 관한 저술로서, 조선후기 세시풍속 및 놀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과 함께 서유구(徐有榘, 1764~1845)만의 독특한 관점과 지향이 반영된 저술 특색을 보여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사이에 조선의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체계를 갖춘 저술들이 다수 출현하는데,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3대 세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유구의 「절신상락」은 그간 『임원경제지』의 방대한 내용 속에 묻혀 본격적인 세시풍속기로 거의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절신상락」이 조선후기 3대 세시기에 비견할 만한 세시풍속 자료로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절신상락」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 서유구가 3대 세시기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며 일 년의 세시풍속을 독자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한 점과, 세시 풍속과 놀이를 향촌의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방안에 대해 고민한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두 번째로 「절신상락」이 한양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세시풍속서의 고증을

---

\* 沈明珠: 國立陽明交通大學人文與社會科學院兼任教授 secolaw@naver.com  
투고일: 2021. 11. 13. 심사완료일: 2021. 12. 11. 게재확정일: 2021. 12. 14.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1..39>

위주로 한 서술을 뛰어넘어, 향촌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놀이문화와 일상생활 지침서로서 저술되었다는 점을 살펴 서유구가 지향하는 향촌 생활 공동체의 면모를 이해해 보도록 한다.

**핵심어** | 절신상락(節辰賞樂), 세시풍속, 생활 공동체, 소통과 화합, 놀이와 생활문화 지침

## I. 머리말

「절신상락(節辰賞樂)」은 『임원경제지 이운지(林園經濟志 怡雲志)』 제8권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세시에 따른 풍속과 놀이에 관한 저술이다. 「절신상락」의 의미는 절기마다 행하는 즐거운 놀이와 볼거리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조선후기 세시풍속 및 놀이 활동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과 함께 서유구(徐有渠, 1764~1845)만의 독특한 관점과 지향이 반영된 특색을 보여준다.

주지하듯이, 조선후기에 들어 발생한 대내외적 변화는 지식인들에게 자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각성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중 세시 풍속 관련 저작 및 세시풍속기의 출현은 그간 산재했던 생활 문화와 관련된 지식들이 객관적인 지식체계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sup> 일반적으로 세시풍속은 오랜 세월 동안 역법이 정한 절일에 사회구성원들의 동의하에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는 일정한 행위들을 지칭하며 세시기는 일 년 중 특정한 절기에 행하는 풍속과 관습을 기록한 책이다. 따라서 세시기에는 이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고, 공동체 관념, 가치관, 염원 등이 내재되어 있으며 오랜 세월 전승되어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대를

---

1) 김월덕, 「세시기를 통해서 본 세시풍속의 재구성과 재탄생」, 『민속학연구』, 제24호, 2009, 151~167.; 장장식, 「『동국세시기』의 기술 태도와 특징」, 『한국문화연구』 2권,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1999, 191~218쪽.; 김만태 외, 「세시풍속의 역사와 변화」, 민속원, 2010.

초월한 동질의식을 갖게 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세시풍속은 전근대 농업사회에서 농업 생산력과 직접적 관련을 맺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시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sup>2)</sup>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사이에 조선의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비교적 체계를 갖춘 세시기들이 다수 출현하는데, 유득공(柳得恭, 1749~?)의 『경도잡지(京都雜誌)』, 김매순(金邁淳, 1776~1840)의 『열양세시기(列陽歲時記)』, 홍석모(洪錫謨, 1781~1857)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3대 세시기로 알려져 있다.<sup>3)</sup> 서유구를 비롯한 삼대 세시기의 저자들은 모두 경화사족으로서, 이들은 광범위한 학문적 교유와 함께 자신들만의 개성 있는 학풍을 추구하는 인물들로 개인적인 사상과 학풍에 있어 차이가 있다. 김월덕(2009)은 이와 관련해 세시풍속을 보는 관점과 구성에서도 상이점이 존재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sup>4)</sup>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서유구의 「절신상락」은 그간 『임원경제지』의 방대한 내용 속에 묻혀 본격적인 세시풍속기로 거의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절신상락」이 조선후기 3대 세시기에 비견할 만한 구성과 내용을 갖춘 세시풍속 자료로서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절신상락」을 삼대 세시기의 구성과 비교해 절신상락이 삼대세시기의 세시풍속을 모두 담아내고, 이에 더해 수시회(隨時會)와 관약(款約)을 부가 저술하여 향촌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세시풍속기를 서유구만의 독자적

---

2) 박태호, 「조선의 세시기에서의 사회적 시간의식에 관하여」,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66, 2004.

3) 18세기 말 한양을 중심으로 한 문물과 풍속, 놀이를 기록한 유득공의 『경도잡지』는 대략 1800년을 전후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며, 저술의 제목이 세시기는 아니지만, 책의 제2권 풍속 편에 세시풍속을 수록하여 이후 김매순의 열양세시기(1819)와 홍석모의 『동국세시기』(1849)의 저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용원 외 역, 국립민속박물관 세시기번역총서5, 『조선대세시기 III』, 국립민속박물관, 2021, 15~18쪽.

4) 김월덕, 앞의 논문(2009), 151~156쪽.

관점으로 구성된 점을 살펴보겠다.

이어서 「절신상락」의 내용상 특징을 고찰해, 「절신상락」이 통상적인 세시 풍속서가 아닌 향촌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놀이문화와 생활문화 지침서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살피도록 한다. 서유구는 유득공이나 여타 세시기 저자들의 서술과는 달리 세시풍속 및 놀이가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고, 생활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고찰의 과정을 통해 서유구가 지향하는 향촌 생활 공동체의 면모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

## Ⅱ. 「절신상락」의 구성체제와 내용

### 1. 절일 구성과 인식체계

「절신상락」은 『임원경제지 이운지』 제8권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세시에 따른 풍속과 모임들에 관한 저술이다. 본 절에서는 「절신상락」의 구성과 내용의 특색을 살펴 조선후기 3대 세시기로 알려진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에 버금가는 독자적 관점과 체계를 갖춘 세시풍속 저술임을 살펴보도록 한다.

유득공의 『경도잡지』, 김매순의 『열양세시기』, 홍석모의 『동국세시기』는 1910년 최남선 등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의 조선 명저와 고전에 관한 간행 자료의 일환으로 소개된 후<sup>5)</sup> 1911년 동국세시기를

---

5) 오영섭, 「조선광문회 연구」, 『조선사학사연구』 제3집, 2001, 79~140쪽 참조.; 최남선과 함께 조선광문회에 참여한 인사들은 민족적 일체감을 고취하기 위해 전통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일본의 조선고서간행회의 조선고전 간행사업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민족의 고전을 발굴하고 간행할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조선광문회 인사들

대표 서명으로 하여 세시기 3책을 합본·출판하게 된 것을 계기로 조선후기 삼대 세시기로 알려지게 된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중반에 걸쳐 저술된 비교적 체계를 갖춘 단일 저서 형태의 생활에 주목한 세시풍속서의 출현 배경과 관련하여 정치·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신문에 조류의 유입, 지적 풍토의 변화 등 각 방면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sup>6)</sup> 세시풍속기가 저술된 시기의 조선은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 상황은 종전과는 다른 조선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상황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sup>7)</sup> 조선 체제를 지탱하던 문예적, 사상적, 물리적 체계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 시기에 체제의 핵심 일원인 한양 출신 유학자들 사이에서 생활의 미풍양속을 담은 조선세시풍속기가 지속적으로 저술되었다는 점은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

이 임원경제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일본측이 임원경제지를 반출하여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고, 일제 강점기에 임원경제지의 존재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1939년 동아일보 4월 20일자에 실린 임원경제지에 관한 기사뿐이다. 추측컨대 임원경제지의 존재유무를 조선광문회 인사들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임원경제지의 방대한 내용 안에 숨어있는 절신상락을 세시기로 주목하거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여지가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 6) 장장식, 위의 논문(1999); 조성산,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朝鮮의 歲時風俗書와 ‘일상’의 記述」, 『歷史教育』 120, 195-226쪽, 2011.; 조성산, 「조선 후기 西人·老論의 풍속인식과 그 기원」, 『史學研究』 -102, 39-77쪽, 2011.; 조성산,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朝鮮 세시풍속서 서술의 특징과 의의-中國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0, 조선시대사학회, 2012; 진경환, 「세시기(歲時記) 서술의 방식과 의미 -『동국세시기』의 “중국 근거 찾기”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3, 57-82쪽, 2006.; 이현진, 「18~19세기 세시풍속서(歲時風俗書)에 담긴 한 양인의 세시풍속과 그 성격」, 『서울학연구』 70, 35-70쪽, 2018.; 박은정, 「조선 후기 세시풍속, 그리고 일상 - 세시기·세시기속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58,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3-42쪽, 2014.
- 7) 예를 들어 병자호란 이후 시작된 천주교와의 접촉과 확산 및 1812년 발생한 홍경래의 난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들 수 있다.

다. 다시 말해 내외적 문예사조와 사상의 유입, 내적 지배체제의 붕괴 조짐 등의 위기에 직면한 집권층 유자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소극적 대응 방안의 하나로써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18세기 들어 진작된 새로운 지적 풍토, 자국 문화에 대한 관심<sup>8)</sup>과 함께 기존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삶을 벗어난 일상생활 본연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된 다채로운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던 조선의 풍속과 전통에 대한 각성과 확립의 필요성이 세시기의 출현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3대 세시기 중 가장 먼저 저술된 유득공의 『경도잡지』는 1794년에서 1796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며, 후에 저술된 『열양세시기』와 『동국세시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도잡지』는 <풍속>과 <세시>편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풍속>편은 조선의 문물제도 가운데 19개 항목을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세시>편도 주요한 세시 절일 19개 항목을 선별하여 재구성 하였다. 『경도잡지』에서 유득공은 항목 선정과 관련된 기준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저술 내용을 선택함에 있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일상생활과 밀착된 세시풍속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체계화하여 정리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득공은 서울을 중심으로 월별 구분 없이 절일 19개를 나열하고 있는데, 세시기 3책에서 언급하는 주요 세시일은 거의 중복되지만, 『경도잡지』 <세시편>이 세시일별로 구성된 것은 『열양세시기』나 『동국세시기』가 월령 체제를 따라 구성한 것과는 다른 점이다. 『경도잡지』는 사대부 중심의 서울의 문물제도와 풍습을 기술한 본격적인 세시기의 출발로 알려져 있으며, 무려 24종의 중국서적을 인용해 고증학적 입장에서 세시풍속의 기원을 중국의 풍속에서 찾으려 노력한 점과<sup>9)</sup> 연행경험을 토대로 우리 풍속을 주변국과 비교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8) 정민,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181~313쪽, 2007.

9) 나경수, 「영재 유득공의 경도잡지와 민속 문화론적 가치」, 『대동한문학』, 제27집, 대동한문학회, 131~156쪽, 2007.

살필 수 있다.<sup>10)</sup>

『열양세시기』는 안동 김씨 대신(臺山) 김매순이 1819년에 저술한 책으로 당시 서울과 경기 일대의 세시풍속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sup>11)</sup> 월별로 1월에서 12월까지 매달 절일을 구분하여 28개의 절일을 소개하고 있으며, 『열양세시기』가 보여주는 특색은 풍속과 국가 질서와의 관련성에 관한 관심의 표출에 있다. 절의와 도학, 문장을 대표하는 세도 가문 출신답게 김매순은 풍속을 단속하여야 국가 기강과 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는 관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열양세시기』에는 『주례』, 『주자가례』를 비롯한 『국조오례의』 등의 인용이 적지 않게 출현함을 볼 수 있고, 궁속(宮俗)에 관한 언급도 자주 등장한다.<sup>12)</sup>

홍석모가 저술한 『동국세시기』는 조선후기 3대 세시기 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월별로 열두 달의 세시 절일을 소개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풍속을 포괄하고 있다. 궁중, 재상, 양반의 풍습뿐만 아니라 일반 민가나 시전의 풍속도 추가하고, 날짜가 고정되지 않은 풍속을 월내 항목으로 묶어 추가하였으며 윤달까지 챙기고 있다. 동국세시기의 서문을 쓴 이자유가 밝힌 대로 홍석모는 “가까이는 서울에서부터, 멀리는 궁벽한 시골에 이르기까지” 모든 풍속을 한 권의 책에 빠짐없이 기술하고자 했던 것 같다.<sup>13)</sup>

---

10) 권순철, 「영제 유득공의 연행과 문물교류」, 성균관대학교대학원 한문학과 석사논문, 61쪽, 2011.; 오용원 외 역, 국립민속박물관 세시기번역총서5, 『조선대세시기 III』, 국립민속박물관, 15~18쪽, 2021.

11) 이규필, 『대산 김매순의 학문과 산문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7~69쪽, 2010.

12) 조성산, 앞의 논문(2012), 191~192쪽.

13) 이자유(李子有) “한 나라의 풍속을 모두 알고 매 세시의 문헌을 다 갖추었으나, 종름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한 지방의 견문을 대충 기록한 것에 비하면 훨씬 뛰어나다.” 이자유(李子有)는 이교영(李敎榮, 1786~1850)의 자이다. 본관은 전주, 호는 곡양자. 184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을 지냈다.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시

「절신상락」이 수록된 『임원경제지 이운지』 제8권은 순서대로 「연한공과」, 「명승유연」, 「문주연회」, 「절신상락」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8의 큰 주제는 향촌 사대부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향촌 구성원, 특히 사대부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제대로 영위(營爲)할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 3대 세시기와 함께 논하고자 하는 「절신상락」은 충실한 ‘세시절일’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간 『임원경제지』의 방대한 내용 속에 묻혀 본격적인 세시기로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절신상락」의 구성은 크게 <세시총목(歲時總目)>, <절일조개(節日條開)>, <수시회(隨時會)>, <관약(款約)>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절일조개>의 내용을 통해 삼대 세시기와 마찬가지로 일 년의 세시절일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임원경제지』를 관통하는 저술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양이 아닌 향촌을 주된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세시풍속 및 다양한 모임과 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경도잡지』와 마찬가지로 월령별 체제를 따르지 않고 세시절일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경도잡지』를 여러 차례 인용하고 있음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바는, 서유구가 『경도잡지』의 구성 체제를 따르고, 자신의 관점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각의 세시일에 나름의 독자적인 명명을 하여 활동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먼저 <세시총목>의 월별행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우문(程羽文, 1644~1722)의 『청한공(淸閒供)』 <월령연(月令演)>편<sup>14)</sup>을 인용해 1월부터 12월까지 무려 64가지 월별행사의 명칭을 기록하고 있다. 월별 행사가

대 세시기』Ⅲ, 151~152쪽. 2021.

14) 정우문(程羽文, 1644~1722)은 명말·청초의 문인으로 자는 신신(愼臣), 휘주흥현(徽州歙縣)사람이다. 『檀幾叢書』에 정우문의 『淸閒供』, 『一歲芳華』과 『石交』등의 저술이 수록되어 있다. 청나라 서사준찬(徐士俊撰) 『檀幾叢書』, <月令演>. 출처: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ctext.org).

매달 적게는 네 가지에서 많게는 일곱 가지로 정월에 가장 많은 행사가 기록되어 있다. 매달 평균 다섯 번 정도의 절일 행사가 있는 셈인데, 바꿔 말하면 매주 한 번씩은 어떤 명목으로라도 사람들이 함께 하는 날로 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와 같은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절일의 존재는 휴식의 시간을 두어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을 다지고, 시간과 계절의 흐름을 느끼도록 각성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유구가 정우문의 『청한공』의 월령연의 내용에서 가져온 64가지 절일 행사는 다양한 중국의 절일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조선의 습속과는 거리가 있고 무엇보다 향촌에서 실행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많은 내용들도 있다. 대부분의 향촌 구성원들은 매일 벼차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농민이고, 향촌의 사대부라 할지라도 향촌에는 음식과 물자도 부족한 상황에서 매달 네다섯 번의 절기를 챙기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서유구가 비록 『청한공』에 수록된 절일들을 중국의 표준적이고 상세한 참고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작 향촌의 모든 구성원들이 실천해 볼 수 있는 절일의 행사는 『증보산림경제』<sup>15)</sup> <촌거락사>의 내용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시골의 즐거운 일이라는 부제의 <촌거락사>의 내용에서는 향촌 환경에서 실천 가능한 놀이를 매달 한두 가지씩 알려준다. 1월에서는 새로 난 썩으로 썩국을 끓여먹고, 정월 대보름에 다리 밟기를 하며, 2월에는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지져 먹으며 놀고, 3월에는 푸른 풀을 밟는 답청 놀이를 즐기며, 4월에는 계절음식으로 느티떡, 장미떡, 고사리, 미나리 등으로 상을 차려 모임을 열거나, 초파일에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로 예쁜 등을 장대에 달아 관등놀이도 한다. 5월은 개울가에서 개를 삶아 먹으며 더위에 지친 몸을 보충하고, 6월에는 흐르는 물에 머리감는 유두(流頭)놀이<sup>16)</sup>를 하고, 몸을

15) 유중임 저, 노재준 외 역, 『(국역)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농촌진흥청, 2004.

16) 복중(伏中)에 들어 있으며 유듯날이라 한다. 이날은 일가친지들이 맑은 시내나 산간 폭포에 가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은 뒤, 가지고 간 음식을 먹으면서 서늘하게 하루를

보신하는 영계짐을 먹도록 한다. 7월에는 호미씻이 모임이 중요한데 농부들이 연간 농작물 재배의 핵심적인 활동을 모두 마치고, 음력 7월 초·중순 무렵에 마을 단위로 날을 정하여 하루를 먹고 노는 잔치를 여는데, 이것이 호미씻이로 명명된 것은, 일 년이라는 영농 주기에서 농작물 재배의 핵심적인 활동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작업이 호미를 이용한 김매기였기 때문이다.<sup>17)</sup> 그 외 걸교유<sup>18)</sup>를 하거나, 배를 띄우고 달빛을 감상하거나 하는 등의 놀이도 즐길 수도 있다. 8월15일은 대보름 달구경 놀이를 하고, 9월 중양절에는 국화를 띄운 술을 마시며, 10월에는 무떡과 닭요리, 백주를 마련하여 모임을 갖고, 11월에는 동지를 지나, 해가 길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영양회(迎陽會)<sup>19)</sup>를 하고, 빈객이 오면 쌀밥과 연포갱(軟泡羹)<sup>20)</sup>을 대접한다. 12월에는 실내에서 키운 매화를 감상하는 모임과 함께 눈이 오면 눈을 감상하는 모임을 갖기도 한다.

상술한 정도가 대략 시골에서 살아가는 사대부와 마을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절기에 따른 놀이라 생각된다. 절기에 따른 먹거리가 위주로 된 행사로 보이는데, 제철에 나는 식재료로 만든 국, 전, 떡, 술을

---

지낸다. 이것을 유두잔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름에 질병을 물리치고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참조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7) 호미씻이 [洗鋤宴, 洗鋤會] (참조 : 한국세시풍속사전)

18) 걸교유(乞巧遊) : 중국에서 고대에 7월 7~8일 저녁에 행하던 행사. 음식이나 과일을 차려놓고 직녀처럼 재주 있게[巧] 해달라고 빈대[乞]는 의미에서 칠석을 '걸교절'이라고도 한다. 정우문의 “월별행사” 7월 항목 투교연이 유사한 내용으로 중국에서 고대에 7월 7~8일 저녁에 행하던 놀이. 칠석날 저녁 왕비 홀로 비단 장막을 친 누대에 올라 비단을 잘라 누대 아래에 뿌리면, 여러 빈궁이 주위 모아 누구의 것이 더 아름답은지를 겨룬 뒤, 다음날 큰 연회를 열고 심사를 하여 지는 사람에게 별로 방식 하나를 만들게 했다. 서유구 지음, 서우보 교정, 임원경계 연구소 옮김, 『임원경 제지 이운지』 4, 풍석문화재단, 2019, 511쪽 참조.

19) 冬至之后日漸長, 古代于冬至日出南郊祭天, 謂之“迎陽”: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여 양의 기운을 맞이하는 모임을 뜻한다.

20) 얇게 저민 두부 꼬치를 기름에 지진 다음 국에 넣어 끓인 음식.

만들어 먹고, 여름에는 닭을 잡아 더위에 지친 몸을 보충해 주며, 수확을 한 후 곡식에 여유가 있을 때 쌀밥을 지어 손님을 대접하기도 하는 향촌의 미풍양속을 소개하고 있다. 놀이나 행사들이 사대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죽국을 끓여 먹거나, 화전을 지져 먹거나 혹은 호미씻이 모임 등을 포함한 다수의 행사는 향촌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 노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이며, 구성원 대다수인 농부들에게 있어 계절 음식과 함께 하는 매달의 절일은 삶에 활력을 주는 큰 낙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중국의 많은 절일과 대비하여 단출하고 소박하게 즐기는 향촌의 풍속과 활동을 도입부에서 서술한 데 이어, <절일조개>를 통해 41가지에 달하는 절일의 세부내용을 본격적으로 소개 한다. <절일조개> 부분이 앞서 유득공의 『경도잡지』, 김매순의 『열양세시기』,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와 유사한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된 부분으로, 정월부터 12월까지 일 년의 절기에 따른 풍속을 서술하고 있다. <절일조개>에서 소개하고 있는 조목을 살펴보면 여타 세시기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경도잡지』 <세시>편이 19개, 『열양세시기』가 29개, 『동국세시기』는 월내를 제외하고 23개의 절일 조목으로 나누어 절일의 풍속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 절일조개는 무려 41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서유구가 18~19세기 통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절일 이외에 많은 조목을 첨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절신상락」에 수록된 월별 행사를 정리한 표이다. 월령 구분이 없는 『경도잡지』와 「절신상락」은 저자가 편의상 월별로 내용을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표1>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절신상락』의 목차구성

	경도잡지 세시편	절신상락 절일조개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1월	원일(元日) 해자사일 (亥子巳日) 인일(人日) 입춘(立春) 상원(上元)	세시가연(歲時家宴) 세수전좌(歲首傳座) 입춘춘반(立春春盤) 인일등고(人日登高) 상원탑교(上元踏橋) 춘사일사반(春社日社飯)	입춘(立春) 원일(元日) 인일(人日) 상신일(上辛日) 상해일(上亥日) 상원(上元)	원일(元日) 입춘(立春) 인일(人日) 상해상자일 (上亥上子日) 묘일사일 (卯日巳日) 상원(上元) 월내(月內)
2월	이월초일일 (二月初一日)	중화절기풍(中和節祈豐) 중이도채(重二挑菜2.2) 화조박접회 (花朝撲蝶會2.15)	삭일(朔日) 초6일(初六一) 상정(上丁) 춘분(春分)	삭일(朔日) 월내(月內)
3월	한식(寒食) 중삼(重三)	한식교유(寒食郊遊) 중삼계(重三禊) 계춘감화국(季春看花局)	청명(清明) 한식(寒食) 삼일(三日) 곡우(穀雨)	삼일(三日) 청명(清明) 한식(寒食) 월내(月內)
4월	사월팔일 (四月八日)	불생일관등(佛生日觀燈) 4월비영회(四月飛英會) 4월목단회(四月牡丹會) 4월결하(四望結夏)	팔일(八日)	팔일(八日) 월내(月內)
5월	단오(端午)	하지제전파(夏至祭田婆) 단오애고(端午艾糕) 중하찬앵회(仲夏餐櫻會)	단오(端午) 초십일(初十日)	단오(端午) 월내(月內)
6월	유월십오일 (六月十五日) 복(伏)	중육폭서회(重六曝書會) 육망유두회(六望流頭會, 6월보름)	십오일(十五日) 복일(伏日)	유두(流頭) 삼복(三伏) 월내(月內)

## 『이운지(怡雲志)』 「절신상락(節辰賞樂)」에 관한 소고(小考)

		복일구장(伏日狗醬) 관연절상연(觀蓮節賞蓮)		
7월	중원(中元)	삼복피서음(三伏避暑飲) 칠석결교(七夕乞巧) 중칠폭서회(重七曝書會) 중원우란분(中元盂蘭盆) 칠망해하(七望解夏) 추사일사반(秋社日社飯)	중원(中元)	칠석(七夕) 중원(中元) 월내(月內)
8월	중추(中秋)	중팔이죽회(重八移竹會) 중추상월(中秋賞月)	추분(秋分) 중추(中秋)	추석(秋夕) 월내(月內)
9월	중구(重九)	중구등고(重九登高) 전중양상국(展重陽賞菊)	중구(重九)	구일(九日)
10월	시월오일 (午日)	진세수상신(秦歲首嘗新) 하원상월(下元賞月)	삭일(朔日) 오일(午日) 이십일(二十日)	오일(午日) 월내(月內)
11월	동지(冬至)	동지수세(冬除守歲) 동지가연(冬至家宴)	동지(冬至)	동지(冬至) 월내(月內)
12월	납평(臘平) 제석(除夕)	납전상매(臘前賞梅) 납회(臘會) 난한회(暖寒會) 세출수세(歲除守歲, 선달 그믐)	납일(臘日) 제석(除夕)	납일(臘日) 제석(除夕) 월내(月內)
윤달				윤달(閏月)
합계	19개 조목	41개 조목	29개 조목	23개 조목 (월내제외)

## 2. 내용 서술의 특색

서유구가 삼대세시기에 수록된 절일 이외에 첨가한 다수의 조목 중 7월을 예로 들어 보면 『경도잡지』와 『열양세시기』는 중원(中元) 하나만을 소개하고, 『동국세시기』의 경우는 중원과 칠석(七夕) 두 가지 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절일조개>에서는 삼복피서음(三伏避暑飮), 칠석결교(七夕乞巧), 중칠폭서회(重七曝書會), 중원우란분(中元盂蘭盆), 칠망해하(七望解夏), 추사일사반(秋社日社飯)까지 무려 여섯 가지 조목을 소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원의 행사 이외에 여타 행사들은 한양에서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서유구가 첨가한 조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양을 벗어난 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농사일이 없는 여름 더위에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활동을 부가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서음과 같이 사람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놀이도 있고, 폭서회는 도서 소장자가 여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 응당 해야만 하는 일이고, 여름이 지나기 전에 농사를 위해 기원을 올리는 일은 농촌에서 중요한 일이다. 또한 칠월칠석날 여자아이들이 결교, 즉 솜씨가 좋아지기를 빌도록 하는 칠석결교와 스님을 위한 행사인 칠월해하를 소개하고 있어 무척 흥미롭다. 서유구는 「절신상략」의 서두에서 소개한 정우문의 연월령에 해하(解夏; 안거 풀기)의 내용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자신의 절일 소개가 정우문의 연월령을 자세히 살폈고, 빠진 부분을 보충설명하고 있음도 말하고 있다.

서유구의 <절일조개>는 『경도잡지』와 마찬가지로 월별 구분을 특별히 두지 않고, 매 월 풍속을 본인이 직접 정한 소재목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즉, 절일의 특징(特長)이 드러나도록 흥미로운 명칭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정월 초하루(1월 1일)에 해당하는 원일(元日)의 예를 들어보면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모두 ‘원일’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나, 서유구는 원일을 ‘세수가연(歲時家宴)’과 ‘세수전좌(歲首傳座)’라는 두 개의 소항목으로 나누고, 정월 초하루에 행할 가장 중요한 행사를 소개하

고 있다. ‘세수가연’에서 서유구는 새해 집안 잔치의 내용을 소개하고 세수 전좌에서는 세배 풍속을 소개하고 있다. 정월 대보름(1월 15일)에 해당하는 상원(上元)은 삼대세시기가 모두 상원(상원)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반면, 서유구는 상원답교(上元踏橋)라는 제목을 붙여 상원에는 다리밟기가 가장 중요한 행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에게 부처님 오신 날로 알려진 4월 초파일은 『경도잡지』는 ‘四月八日’로, 『열양세시기』와 『동국세시기』는 八日로 간단하게 날짜로만 제목을 언급하나, 「절신상락」 <절일조개>에서는 ‘불생일관등(佛生日觀燈)’이라는 부제를 통해 제목만으로도 이날 관등행사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서유구는 <절일조개>에서 모든 절일에 중요한 행사를 부가하여 명칭을 만들어 소개하고 있는 특색을 보여준다.

서유구는 <세시총목>에서 중국 자료로 정우문의 청한공(淸閑供) 연월령(月令演), 이어서 조선의 『증보산림경제』를 인용하였고, <절일조개>에서는 권용정의 한양세시기<sup>21)</sup>를 인용한 것이 한 번, 한양세시기라는 서명을 적었으나, 내용 출처는 유득공의 『경도잡지』를 인용한 것이 열 세 차례로 그 외 항목은 모두 자신의 저술 『금화경독기』를 출처로 하고 있다. 서유구가 유득공의 『경도잡지』를 참고삼아 저술한 연유는 두 인물 사이의 관계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서유구의 어린 시절 가정교사였던 연암학과 유련(柳璉, 1741~1788)은 유득공의 숙부로 유득공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며, 모두 박지원에게 나아가 학문을 배우고 북학파의 일원으로 평생을

21) 조선 말기에 권용정(權用正)이 지은 세시기로, 이 책은 정월 초하루부터 설날 그믐날 까지 32개 항목을 설정하여 직접 관찰한 한양의 풍속을 기술하였는데, 앞부분의 14개 항목은 주로 세시를 쓰고 있으나, 뒷부분의 18개 항목은 어른이나 아이들의 놀음놀이를 기술하였다. 『한양세시기』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비하여 그 내용은 간략한 편이나, 중국의 세시기·고사(故事)·한시 등을 인용하여 풍속의 뿌리를 중국에서 찾으려 하였던 『경도잡지(京都雜志)』나 『열양세시기(溧陽歲時記)』에 비하면,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객관적이며 비판적이라 평가 받는다. (참조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학문지 지기로 지냈다.<sup>22)</sup> 김매순의 『열양세시기』나 홍석모의 『동국세시기』는 서유구의 저술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쓰여 진 것이 확실하지만, 김매순이나 홍석모가 서유구의 『이운지』 「절신상락」을 참조한 것 같지는 않다. 「절신상락」은 아마 김매순이나 홍석모가 세시기를 저술할 때 세간에 알려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대로, 서유구는 『경도잡지』에 수록되지 않는 절일을 보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득공이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절일의 내용을 기록한 반면, 서유구는 이에 더해 향촌 실생활 속에서 구성원들이 실제 행할 수 있는 절일의 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인일(人日, 정월 7일)의 내용을 보면, ‘인일(人日)에는 높은 곳에 올라 시를 짓는다’라는 내용으로 『형초세시기(荆楚歲時記)』<sup>23)</sup>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래로 삼는다고 전하는데, 조선의 조정에서는 매년 이날에 과거를 행하고, 향촌에 거주하는 선비들은 벗들을 데리고 지인들을 초청하여 높은 곳에 올라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이 날을 기념한다고 설명한다. 인일의 유래, 현재 한양에서의 쓰임, 향촌 선비들의 용도까지 절일에 소개된 내용을 통해, 절일의 중국 연원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향촌 선비들이 지내는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sup>24)</sup> 사월목단회 또한 유사한 구성으로 절일의 유래와 내용을 소개하고 향촌의 선비들이 이 절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소개한다.<sup>25)</sup>

22) 권순철. 앞의 논문 (2011); 김대중, 『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 돌베개, 2019. 참조

23) 중국 육조 시대의 湖北지방과 湖南지방의 연중 행사와 풍속을 기록한 책. 6세기 중기에 양나라 종림(宗懷) 편찬하였다. 蕭放, 『《荆楚歲時記》研究, 兼論傳統中國人生活中的時間觀念』, 秀威資訊, 2018. 참조.

24) 人日登高: 《荆楚歲時記》云: “正月七日, 登高賦詩.” 又云 “北人此日, 食煎餅于庭中, 謂之‘薰天’.” 韓退之有《人日登高》詩, 張約齋《賞心樂事》, 亦有人日煎餅會, 蓋七日人之說. 始自東方曼倩, 殊近齊諧, 不可典要, 而沿襲既久, 亦不可廢. 我朝每於是日, 設科取人, 與重三, 重七, 重九, 同爲名節. 林居野處之士, 亦宜携朋招侶, 登高臨流, 以識此日也. 『입원경제지 이운지』 4 「절신상락」, <인일登高> 520쪽 참조.

25) 四月牡丹會: (---)古今賞花之遊, 未聞有奇麗若是者. 蓋亦富貴家標致耳, 林原清修之士,

이와 함께, 관연절<sup>26)</sup>의 내용도 흥미롭다. 서유구는 관연절에 행해지는 화려하고 운치 있는 중국 풍속을 세 가지나 소개하고 이어서 산촌에 사는 선비들이 이를 따라할 수 없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름 소박하지만 아취 넘치는 관연절 지내기 방법을 고안하여 제시하고 있다. 간혹 <절일조개>에서 절일의 유래와 내용을 장황하게 소개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절일의 조목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바는 서유구가 향촌의 생활 공동체 구성원들이 절일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에 관한 방법과 내용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상, 「절신상락」 <절일조개>의 내용을 통해 서유구의 관점이 반영된 세시풍속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후술하겠지만 서유구는 <수시회>라는 부제를 통해 그야말로 수시로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임들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경로 모임인 상치회(尙齒會), 공부 모임인 난강(暖講), 활쏘기 모임인 관덕회(觀德會), 뱃놀이 모임인 범주회(泛舟會), 생일회(生日會), 매월 초하루 탕병모임(月朝湯餅會), 월회(月會) 등이 있다. 절일에 따라 사람들이 함께하는 41가지 행사 및 놀이와 <수시회>까지 합치면 매달 촌민들이 동참하는 많은 행사가 이루어져, 마을 구성원들의 관계가 소원해질 여유가 없을 듯하다. 이렇듯 「절신상락」을 통해 서유구는 다채로운 절일 지내기 행사를 소개하며,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활동을 안내하고, 절기 놀이와 모임을

---

何能辦此。但得名香，古墨，蜀棧、宋研，座客能揮染，山童解煎茶，快心。七八人就朱欄，緣苔邊，設須彌榻，作雅會。興劇，取落英拖麪，煎以酥油薦酒，亦不害，爲措大賞花也。『임원경제지 이운지』 4 「절신상락」, <사월모란회> 536쪽 참조.

- 26) 觀蓮節賞蓮：(---)已上三遊，或出太守風流，或出豪富闔廡，山野之間，安得彷彿。客不必賓僚，但得素心六七人，鬪韻清談斯可矣；盆不必畫，但得鶯領，茄袋等花囊十數枚，插花不繁不瘦斯可矣；卮不必金，但得瘦杯，瓷醞淺斟細酌斯可矣；行酒不必妓姬，但得眉清目秀山童，歌王勃《採蓮曲》以侑觴斯可矣。昔袁石公作《觴政》：“以玉，犀，瑪瑙爲杯杓，上品，以熊白，西施乳爲飲儲，異品。”且曰：“聊具色目而已，下邑貧士，安從辦此政。使瓦盆蔬具，亦何損其高致”，余於此亦云。『임원경제지 이운지』 4 「절신상락」, <관연절 연꽃 감상> 544쪽 참조.

함께 하는 계기를 통해 구성원의 결속을 다지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라고 일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세시기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절신상락」이 가진 특색이라 볼 수 있다.

### Ⅲ. 향촌 놀이의 재구성과 촌민 화합의 노력

#### 1. 향촌민을 위한 놀이의 재구성

서유구는 「절신상락」에서 <세시총목>과 <절일조개>편과 함께 <수사회>와 <규약>을 함께 묶어 놓아 향촌에서의 모임과 놀이의 범위를 확장하여 정리·소개한다. 세시 풍속을 재구성하여 지식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서유구는 세시풍속이 향촌 마을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절일에 따른 풍속과 <수사회>를 함께 엮어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있는바, 풍속 및 놀이가 절기에 따른 관습적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향촌의 생활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을 위한 생활 문화의 지침으로의 활용을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지침 방안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절신상락」 <절일조개>의 매 항목에는 향촌의 남녀노소 막론한 모든 구성원을 위한 절일의 풍속 지내기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두 번째 『이운지』 권1 「형비포치」에서 서유구가 구상한 향촌 공간과 관련된 행사도 수록되어 있어 세시 풍속 혹은 놀이가 수행되는 공간과의 관련성을 알려준다. 세 번째 여타 세시기에서 볼 수 없는 계절별로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와 활동들을 절기마다 빠짐없이 기술하고 있다. 먼저 향촌 마을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절일의 풍속 지내기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상원답교(上元踏橋) : 시골 들판에는 거닐 만한 큰 거리나 넓은 다리가 없으니, 다만 황혼 무렵에 햇불을 밝히고 언덕에 오르는데 이것을 ‘달맞이’라 한다. 이때 달무리를 보고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또는 강이나 나무, 연못이나 습지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썰매를 타거나 얼음을 건너며 다리밟기를 대신한다.<sup>27)</sup>

대보름의 다리밟기 행사는 전국적으로 성대한 행사라고 전한다. 고려시대에 처음 시작했다고 전하고, 한양 도성 사람들은 운중가로 나와 종각 종소리를 들으며 다리들을 밟았는데 소광통교, 대광통교, 수표교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중국서적에 수록된 풍속의 연원도 밝히고 있다. 내용 말미에 시골에서 다리 밟는 행사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설명하는데, 한양 도성처럼 큰 거리와 넓은 다리가 없으니 언덕에 햇불을 들고 올라 달맞이를 하고, 강이나 나무 연못에서 썰매를 타거나 거닐어 다리 밟기 놀이를 대신하라고 일러준다. 다음은 불생일관등이라는 부제가 붙은 4월 초파일 행사에 관한 내용 중 마을 구성원들을 위한 행사 소개 내용이다.

불생일관등(佛生日觀燈) : 초파일에는 손님을 맞이하여 음식을 대접하는데, 유엽병(楡葉餅, 느티떡)·볶은 콩·데친 미나리를 내어놓으며, ‘석가탄신일에 먹는 소찬(素饌)<sup>28)</sup>’이라 한다. 또 어린아이들이 동이에 물을 담아 등불을 다는 장대 아래에다 놓고 바가지를 띄우고는 빗자루를 가지고 바가지 뒷면을 툭툭 두드려 진술한 소리를 내는데, 이것을 ‘물장구[水鼓]’라 한다. 민가에서 등에 불을 걸 때에는 자녀들의 숫자대로 밝혀야 길하다고 여긴다. 등불을 다는 장대는 큰 대나무 수십 개를 묶어서 만든다. 꼭대기에 썰의

27) 上元踏橋: 田野之間, 無通衢廣橋可踏, 則只於黃昏, 燃炬登阜, 謂之“迎月”, 以占豐荒. 或居近江浦、池澤者, 乘凌床涉水, 以代踏橋. 풍석 서유구 지음,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이운지』 4 「절신상락」, <절일조개> ‘상원답교’ 523쪽 참조.

28) 소찬(素饌) : 생선과 고기반찬이 없이 채소와 곡류로만 차린 밥상.

깃을 꿰고 색색의 깃발을 매어 달거나 혹은 일월권(日月圈)<sup>29)</sup>을 꿰어두면 바람이 부는 대로 현란하게 돌아간다.<sup>30)</sup>

서유구는 초파일의 민간 행사를 『경도잡지』의 내용을 인용하여 수록하고 있다. 아마도 도성이나 향촌 마을 주민 모두가 행할 만한 활동으로 계절 채소로 손님에게 소찬을 대접하고 어린이들이 목탁을 두드리듯 바가지 뒷면을 두드리며 물장구를 치거나 집집마다 대나무에 등불을 밝히는 풍속을 권해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을 민가에서 나름의 소박한 방법으로 지켜나갈 것을 권유한다.

두 번째, 『이운지』 권1 「형비포치」에서 서유구가 구상한 향촌 공간의 내용과 연계된 절기 놀이도 있어 살펴보도록 하자. 서유구는 「형비포치」를 통해 다양한 정자 공간을 소개한 바 있는데, 그중 ‘택승정’, ‘죽정’, ‘관설암’이 ‘절신상락’의 계절별 놀이와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서유구는 사실 「절신상락」에서 『경도잡지』의 두 배에 달하는 다양한 절일 놀이들을 소개하고 있다. 『경도잡지』의 내용은 모두 담고 있되, 매달 두세 가지 정도씩 각 절기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절일을 추가하고 있다. ‘택승정’과 관련이 있는 절일로는 ‘중삼계(重三禊)’라는 부제로 부르는 날인데, 이 날은 3월 3일로서 경도잡지에서 단 한 줄로 간단히 서술된 내용을 크게 보충하여 주례(周禮)에서 전거를 찾고, 조선의 관례도 소개하며, 계절 음식으로 진달래 전이나 썩떡을 나눌 것을 알려준다. 서유는 ‘중삼일’ 항목에서 ‘택승정’을 언급하며 이날 야외로 봄놀이를 다닐 때 빠뜨릴 수 없는 도구라고 설명한다.

29) 일월권(日月圈) : 바람개비의 일종. 사월 초파일에 세우는 등대 꼭대기의 장식.

30) 佛生日觀燈 : 延客設饌, 榆葉餅, 煮豆, 烹芹, 云是“佛辰茹素”. 又童子設盆水于燈竿下, 泛瓢, 用帚柄叩其背, 爲眞率之音, 號爲“水鼓”. 人家點燈, 依子女多少, 以明亮爲吉. 燈竿, 縛大竹累十而成, 頭插雉羽, 繫色幟, 或插日月圈, 隨風眩轉. 풍석 서유구 지음,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이운지』 4 「절신상락」, <절일조개> ‘불생일관등’ 531쪽 참조.

‘택승정’은 현대의 이동식 텐트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한데, 봄날 꽃놀이(답청 놀이)뿐만 아니라 가을날 좋은 날을 골라 달구경을 할 때도 쓰인다고 전한다.<sup>31)</sup>

「형비포치」의 ‘죽정’과 관련하여 「절신상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내용은 8월 8일의 ‘이죽회’이다. 여타세시기의 이죽회는 절기 풍속으로 간주되지 않은 듯 아무런 내용이 없다. 서유구가 대나무를 좋아했음은 「형비포치」, ‘죽정’<sup>32)</sup>의 내용을 통해 잘 알 수 있고, 대나무를 옮겨 심는 날인 이죽회(重八移竹會) 또한 서유구의 애호가 반영되어 첨가된 내용이라 생각된다. 6월 6일과 7월 7일에 행해지는 ‘폭서회(曝書會)’는 책을 ‘장서각’에서 내어 햇볕에 말려 벌레가 책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 행사이며 이날은 책을 외부인에게 필사하게도 하는 등 인심도 쓰는 날이다. 이렇게 향촌 공간과 활동들이 연관되어 서술된 것으로 볼 때, 서유구는 주거 공간을 구상할 때 관련된 놀이와 활동까지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 번째, 계절별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놀이들이 부가된 내용도 있다. 봄에 꽃을 감상하는 놀이인 ‘계춘간화국(季春看花局)’, 여름에 연꽃을 감상하는 ‘관연절(觀蓮節賞蓮)’과 더위를 피해 자연으로 나가는 ‘삼복피서음(三伏避暑飲)’, 가을의 국화감상을 위한 ‘진중양상국(展重陽賞菊)’, 겨울에 야외에서

31) 擇勝亭：“豈獨臨水，無適不臧。春朝花郊，秋夕月場，無脛而趨，無翼而翔。敝又改爲，其費易償。榜曰擇勝，名實允當。”풍석 서유구 지음,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이운지』 1, ‘택승정’, 175쪽 참조.

32) 竹亭：苑之中，擇濱水沙白地，跳土爲脚，種紫竹千竿。引水爲澗，穿竹林澗澗循階，護以竹欄。竹欄之右，構竹爲亭，或六角，八角。凡柱樑，桷椽，闌檻一切以竹，不用片木。復剖大竹通節。一仰一覆，固以竹釘以代鴛鴦瓦，黑漆灌油，中覆瓦兜頂子。亭之內，置湘竹榻一，湘竹椅一，斑竹書几一，斑竹硯匣一，斑竹筆筒一，竹節水滴一。主人戴竹冠，携筇竹杖，逍遙其中。不寧一日不可無此君，定是一物不可非此君也。竹欄之外，距澗爲畹，種以甘菊。菊之外，接畹爲塢，種古松二，疏梅五，伴以綺石。是數者皆此君之良侶，密友也，毋令此君離群而索居。『怡雲志』，「衡泌鋪置」，券一。 풍석 서유구 지음,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이운지』 1 ‘죽정’, 169쪽 참조.

천막을 이용해 추위를 피하며 눈을 감상하고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추위를 녹이는 ‘난한회(暖寒會)’를 들 수 있는데, 모두 여타세시기에서는 볼 수 없는 계절 활동들이다. 세시풍속이라고 명명하기에도 약간은 애매한 내용으로 절기마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아래 예문에서 삼복피서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삼복피서음(三伏避暑飲) : 물가의 나무 그늘에는 절로 한 줄기 시원함이 있으니, 마음에 흐뭇한 벗들과 바람 시원한 정자나 연못의 누대에 나아가, 자두나 참외를 찬물에 띄워 두고 껍질 깬 마름과 흰 연근을 마련해놓고, 옷을 벗어젖히고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노래하고 휘파람 불며 긴 날을 보낸다면, 광려(匡廬)의 나는 듯 쏟아지는 폭포나 태호(太湖)의 밝은 달빛이나 아미산(峨嵋山)의 만년설이 필요 없는 피서 계획이 된다. 33)

서유구는 여름의 무더위를 피하는 방법으로 물가 정자를 추천한다. 정자에서 계절과일을 시원한 물에 띄워놓고 옷을 벗어젖히고 긴 여름날을 보낸다면 중국의 유명한 폭포나 만년설이 아니더라도 여름을 나는 좋은 피서책이 될 것이라 추천한다. 이렇게 서유구는 절기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놀이들을 부가해 <절일조개>의 세시풍속을 서술하고, 여기에 더해 <수시회>까지 소개하고 있다.

## 2. 향촌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생활문화 지침

<수시회>는 절기와는 관계없이 향촌 구성원이 함께하는 활동들을 수록한

---

33) 水次木陰，自有一段清涼，宜與快心友朋，就風亭池樹，沈李浮瓜，剝菱雪藕，解衣磐礴，歌嘯永日，不必待匡廬之飛瀑，太湖之明月，峨嵋之古雪，爲消暑計也. 풍석 서유구 지음,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이운지』 4 「절신상략」, <절일조개> ‘삼복피서음’ 523쪽 참조.

것으로, 경로모임인 ‘상치회(尙齒會)’, 마을 학생들의 공부를 위한 ‘난강(暖講)’, 활쏘기 모임인 ‘관덕회(觀德會)’, 뱃놀이 모임인 ‘범주회(泛舟會)’, 마을 생일 잔치인 ‘생일회(生日會)’, 매월 1일에 열리는 ‘월조탕병회(月朝湯餅會)’, 마지막으로 ‘월회(月會)’를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모임들을 위한 규율들도 설명한다. <수사회>의 내용은 마을의 노인, 어린이, 어른 모두를 아우르는 행사들로 골고루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로회, 독서회, 운동회, 야외 물놀이, 생일잔치, 매월 열리는 탕병회 혹은 월회 등은 사실 현대사회의 마을에서도 행해지는 활동들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월조탕병회의 내용은 현대 사회의 마을 월별 모임, 예를 들면 반상회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월조탕병회(月朝湯餅會) : 자가 자평(子平)이고, 호가 만당(漫堂)인 송나라 유재(劉宰)는 매월 초하루에 반드시 탕병(湯餅)을 끓여 친족들을 모으고 말하기를 “오늘의 모임은 술 마시고 음식 먹기를 예로 여겨서가 아니다. 평상시에 친족들이 화목하지 못한 일은 대부분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고 이간하는 말이 먹혀드는 데에서 발생한다. 이제 달마다 반드시 모여 술을 마시며 선행이 있으면 서로 알리고 허물이 있으면 서로 바로잡아 주며, 어떤 일로 인해 서로 서먹서먹한 자들이 피차간에 서로 한번 만나 또한 술잔을 조용히 기울이는 사이에 가슴속 앙금을 잊게 된다면, 어찌 보탬이 작겠는가?”라 했다. 나는 향촌 사회의 좁은 마을에 친족끼리 모여 사는 경우에 이런 모임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너무 자주 모이는 것이 마뜩찮다면 계절마다 한 번씩으로 변경하여 모이는 것도 좋다.<sup>34)</sup>

34) 月朝湯餅會：宋 劉宰，字子平，號漫堂，每月朝，必治湯餅會族，曰：“今日之集，非以酒食爲禮也。尋常宗族不睦，多起于情意不相通，間言入焉。今月必會飲，有善相告，有過相規，有故相抵牾者，彼此一見，亦相忘於杯酒從容間，豈小補哉？”余謂鄉野井里之間，聚族而居者，不可無此會。如嫌太數，改以四季，可也。 풍석 서유구 지음,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이운지』 4 「절신상락」, <수사회> ‘월조탕병회’ 579~580쪽 참조.

서유구는 향촌의 마을에 모여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임으로 주민들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서로 소통이 부족하고 이간하는 말에 오해가 생기기 때문이니 가끔은 직접 얼굴을 보고 허물없는 대화를 나누어 혹성나 있을 법한 오해를 풀도록 권유한다. 또한 ‘관덕회’와 같은 운동회를 통해 주민들의 심신을 단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경로잔치 생일잔치를 통해 이웃을 챙기고, 뱃놀이 같은 마을 야유회를 열기도 한다. 어린이를 위해 고을의 식자층이 여는 복습모임과 공부에 뜻이 맞는 향촌 사대부들끼리의 모임인 월회를 통해 서로의 공부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마을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와 생활관련 지침을 제안함으로써 마을 주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라고 언급한다. 모임에는 계획과 규칙이 필요한 법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지침에 대한 언급도 빼먹지 않는다.

공과(功課) : 1첩의 장부를 만들어 항상 가지고 다니며 매번 모임마다 먼저 날짜·좋은 장소·차례·함께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다. 만나는 즐거움이 무르익으면 여럿이 모임할 때 경계해야 할 일을 고려해야 한다. 인성(人性)을 탐구하는 일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륜으로 마땅히 밝혀야 한다. 또 학문으로 벼슬 모으는 일[畵文]을 절실한 목적으로 삼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육예(六藝)를 즐겨 다룬다. 이때 반드시 여몽(呂蒙)이 예전과 같지 않았던 일처럼 해야 비로소 괄목상대(刮目相對)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혹시 그 사람의 됬됨이가 처음과 다를 바 없다면 어찌 떠들썩하게 웃는 일만 중시하겠는가? 이날 각각 공훈과 허물을 헤아려 권선징악의 뜻을 명확히 보이고자 한다. 만약 훌륭한 일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자질이 뛰어난 손님에게 명하여 종이에 기록하게 한다.<sup>35)</sup>

35) 『林園經濟志』『怡雲志』卷 第八「燕閑功課」〈功課〉, “置一簿, 携以自隨, 每會, 先記日月, 勝地, 次列, 同集姓名. 聚首之樂既暢, 群居之戒可虞. 要以究性爲先, 不則五倫當晰; 又以會文爲切, 不則六藝可遊. 必阿蒙非昔, 始無慚刮目相看, 倘聖質如初, 亦何貴開口而笑? 是日各種功過, 明示勸懲. 設有懿聞佳話, 可命穎客楮生.” 풍석 서유구 지음,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이운지』 4 「절신상략」, <관약>

사대부들끼리의 모임과 촌민들과 어우러져 함께하는 다양한 모임이 소개 되는데, 이 모임에는 원칙이 있다. 먼저 서유구는 각양각색의 모임을 위해 기록 장부를 만들고 기획한다. 서유구가 기획한 모임은 떠들썩하게 웃고 즐기는 모임이 아니다. 만남의 원칙은 인성탐구이고, 학문으로 벼슬 만나야 하고, 혹은 육예를 즐기는 목적으로 서로의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참여자의 공과 실을 헤아리고 권선징악을 논하는 것도 모임의 목적이며 미담이 있거나 훌륭한 객은 종이에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도록 한다. 현재와 같이 대중적 소통 매체가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이니, 이런 자리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와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장으로 삼기도 한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모임 규약 부분의 금기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금기사항(戒禁) : 모임에서는 조정에서 논의해야 할 당시의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하고, 저잣거리에서나 얘기할 만한 저속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하고, 몰래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아야 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며 공격하지 말아야 하고, 일부러 미치광이 같은 행동과 난잡하고 방자한 태도와 떠들썩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억지로 일을 만들려 하지 말고, 함부로 비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시비 가리는 일을 월회(月會)의 내용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저속하고 잡스러운 놀이를 풍류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일을 범한 경우에는 생은(生銀) 5푼을 납부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별주로 민기주(悶氣酒)<sup>36)</sup> 3잔을 마신다.<sup>37)</sup>

---

‘공과’ 588~589쪽 참조.

- 36) 민기주(悶氣酒) : 격려를 하거나 경계를 하기 위해 주는 술. 여기서는 일종의 면박을 주어 경계를 하기 위해 주는 별주로 생각된다.
- 37) 戒禁 : “勿言朝廷時政, 勿作市里猥談, 勿陰說短長, 勿互相攻擊, 勿故爲狂態, 亂恣, 喧呶, 勿強作解事, 妄加評品. 毋以雌黃爲月朝, 毋以穢雜爲風流, 犯者隨納放生銀五分, 輕則立飲悶氣酒三爵.” 풍석 서유구 지음,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이운지』 4 「절신상락」, <관약> ‘계금’ 590~591쪽 참조.

다양한 절기 풍속과 모임을 서술한 뒤, 마지막 당부는 정치적인 이야기, 저속한 이야기, 다른 사람 흠잡기, 난잡한 이야기, 비평을 대화의 주제로 삼지 말고, 조속하고 잡스러운 놀이를 풍류로 삼지 말 것을 권유한다. 이 내용을 통해 서유구가 「절신상락」의 긴 내용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알 수 있다. 모든 풍속 놀이와 모임은 생활 공동체 구성원의 화합과 소통을 목표로 하고, 이에 방해가 되는 일을 행하는 구성원은 벌금이나 벌주를 주어 차후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향촌 사회의 화합을 위한 실천적 규칙을 제시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생활 공동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살펴본 대로, 서유구는 세시기의 형식을 통해 마을 구성원들이 절일에 함께 할 수 있는 풍속 놀이들을 재조직하고, 이러한 놀이와 활동들을 즐기는 방법을 일러주어 생활 공동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즐거움을 배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의 지침을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절신상락」은 조선후기 삼대세시기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며 서유구만의 독특한 관점과 지향을 가지고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세시 풍속과 놀이문화를 재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 IV. 소결

이상, 「절신상락」의 구성과 내용 고찰을 통해, 조선후기 3대 세시기에 비견할 만한 세시풍속 자료로서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서유구는 「절신상락」을 네 부분으로 구성하여 일 년의 세시풍속을 순차적으로 구성하고 있고, 세시 풍속과 놀이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고민하였다. 절일의 명칭에 활동 내용을 더해 독특한 절일 명칭을 만들어 서술하고, 각 절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놀이나 활동들을 대폭 첨가해 3대 세시기의 두 배에 가까운 절일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절일의 활동이

촌민들에게 부담스러울 경우 반듯이 향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소박하고 단출한 절일 활동들을 소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모임을 통해 생활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유대감을 느끼고, 소통하는 계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서유구는 세시풍속이 갖는 본연의 성격 즉, 절일에 따라 순환되며 보편적인 민족의 활동으로서 생활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이 노동에서 벗어나 놀이를 즐기는 일종의 잔치나 축제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일마다 해야 할 중요한 놀이제목을 함께 명명하고, 절일 활동 이외에 수시로 만나는 모임도 기획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향촌 사회의 화합을 위한 지침과 규칙을 제시하여 구성원들이 실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서유구가 서술한 「절신상락」은 일반적인 세시풍속서가 아닌 향촌 생활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놀이와 생활문화 지침서로서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순철, 「冷齋 柳得恭의 燕行과 文物交流.」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대중, 『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 들배개, 2019.
- 김만태 외, 『세시풍속의 역사와 변화』, 민속원, 2010.
- 김윌덕, 「세시기를 통해서 본 세시풍속의 재구성 과 재탄생」, 『민속학연구』, 제24호, 2009, 151~167쪽.
- 나경수, 「영재 유득공의 경도잡지와 민속문화론적 가치」, 『대동한문학』, 제27집, 대동한문학회, 2007, 131~156쪽.
- 박은정, 「조선 후기 세시풍속, 그리고 일상 - 세시기·세시기속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58,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13-42쪽.
- 박태호, 「조선의 세시기에서의 사회적 시간의식에 관하여」,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66, 2004.
- 서유구 지음,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 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이운지』 1, 풍석문화재단, 2019.
- 서유구 지음,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 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이운지』 4, 풍석문화재단, 2019.
- 이규필, 「대산 김매순의 학문과 산문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67~69쪽.
- 이현진, 「18~19세기 세시풍속서(歲時風俗書)에 담긴 한 양인의 세시풍속과 그 성격」, 『서울학연구』 70, 2018, 35-70쪽.
- 유중임 저, 노재준 외 역, 『(국역)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농촌진흥청, 2004.
- 오영섭, 「조선광문화 연구」, 『조선사학사연구』 제3집, 2007, 9~140쪽.
- 오용원 외 역, 국립민속박물관 세시기번역총서5, 『조선대세시기 III』, 국립민속박물관, 2021, 15~18쪽.
- 장장식, 「『東國歲時記』의 기술 태도와 특징 - 『京都雜志』, 『洌陽歲時記』와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민속과 문화』 2,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 정민,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181~ 313쪽.

- 조성산,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朝鮮의 歲時風俗書와 ‘일상’의 記述」, 歷史教育 120, 2011, 195-226쪽.
- \_\_\_\_\_, 「조선후기 西人·老論의 풍속인식과 그 기원」, 『史學研究』 102, 2011, 39-77쪽.
- \_\_\_\_\_,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朝鮮 세시풍속서 서술의 특징과 의의—中國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0, 조선시대사학회, 2012.
- 진경환, 「세시기(歲時記) 서술의 방식과 의미 -『동국세시기』의 “중국 근거 찾기”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3, 2006, 57-82쪽.
- 徐士俊撰 《檀幾叢書》, 〈月令演〉,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蕭放, 『《荊楚歲時記》研究：兼論傳統中國人生活中的時間觀念』, 秀威資訊 2018.

A STUDY ON THE 「*JEOLSIN-SANGNAK*(節辰賞樂)」'S SEASONAL  
CUSTOMS

SHIM MYUNGJOO (SHIM, MYUNG JOO)

This essay discusses seasonal customs manuals in 「*Jeolsin-Sangnak*(節辰賞樂)」, described in ‘*Yiwunji*(怡雲志)’ of *ImwonGyeongjeji*(林園經濟志). The writing shows the characteristics that reflects his unique perspective and orient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Three Major Almanacs(*Sesigi*)—*Gyeongdojapji*(京都雜志), *Yeolyang-sesigi*(列陽歲時記), and *Dongguk-sesigi*(東國歲時記) was published. Seo Yu-gu's 『*Jeolsin Sangnak*』, presumed to have been written around the same time, but has been hidden in the vast content of 『*Imwon Gyeokji*』 so that it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as a full-fledged seasonal customs manual.

This paper debates two major topics in order to clarify the importance of 「*Jeolsin-Sangnak*」 as a seasonal customs manual comparable to the Three Major Almanacs(*Sesigi*). First, by examining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Jeolsin Sangnak*」, Seo Yu-gu not only covers all the contents of the Three Major Almanacs(*Sesigi*), but with his perspectives and understanding of seasonal customs considers seasonal manuals's practical application in the rural life. Second, this paper will discuss the fact that 「*Jeolshin-Sangnak*」 was written as a guide book for communication and harmony among members of rural communities, also going beyond the narratives which focused on

the historical evidence of Hanyang oriented seasonal customs. Therefore, this paper has developed existing discussions about seasonal customs manual to examine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the contents of Seo Yu-gu's ideal rural living community.

Key Words : Almanacs(*Sesigi*), *Jeolshin-Sangnak*, seasonal customs, living community, communication and harmony, Guideline for recreation and life culture.

